

# 최태원,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체계 구축



11년째 대표이사 역임... 2028년까지 3년간 임기  
“핵심산업 가치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사내이사 강동수, 사외이사 이관영·정종호 선임



SK서린사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 SK(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이사회 중심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책임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34차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까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통합지주사 출범 이래 11년째 대표이사를 역임하게 됐다. SK주식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SK스퀘어,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바이오팜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S

K그룹의 지주사다.

정기주총의 의장을 맡은 장용호 SK 사장은 최 회장의 사내이사 추천사유에 대해 “SK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하며 회사 및 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적인 이사회 활동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며 “핵심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등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및 재무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SK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SK

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회장도 겸임하면서 그룹의 주력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올해 SK 주주총회는 단순한 임원 인선과 재무제표 승인 등 전통적인 안건을 넘어 이사회 전문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 이외에도 강동수 PM(Portfolio Management) 부문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출됐고, 사외이사로는 이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전 고려대 연구부총장)과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6년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염재호 사외이사를 이어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인 김선희 사외이사가 의장으로 신규 선출됐다.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최 회장의 취지로 해석된다.

최 회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언급하면서 수익 마진, 고객만족도, 지속가능성 등 핵심 성과지표를 최적화해 사업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내이사로 재선임 된 만큼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최적화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최 회장의 뜻에 따라 최창원 SK 디스크버리 부회장은 지난해 수펙스추진협의회(수펙스) 의장을 맡아 그룹 리밸런싱을 진두지휘하면서 SK의 비주력사업과 지분정리 등을 통해 종속회사 정리 및 순차입금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SK 관계자는 “SK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이사회에서 현장의 경영 감각이 살아있는 현직 전문 경영인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변화·혁신 골든타임... 배터리 주력 성장”



구광모 회장 “질서의 거대한 축 변화 LG에게 ‘새로운 성장의 사고’ 요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와 같은 미래 국가 핵심 사업을 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회장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고, 권봉석 (주)LG 부회장(COO)이 구 회장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구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해 “글로벌 국제 관계와 경제 환경의 변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시대 질서의 거대한 축이 변하고 있다”며 “이는 LG에게 ‘새로운 성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 아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이끌어내어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 여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LG가 부응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그룹이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신성장 동력 육성’ 두 개의 축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하겠다”며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있어 LG 구성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내실 있는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LG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삼은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주력사업의 시장지배력을 보다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분야에서 차별

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미래 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같은 산업은 미래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기술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LG는 이날 권봉석 (주)LG 부회장과 하범종 (주)LG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보통주 1주당 3100원, 우선주 1주당 315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AI 피라미드 2.0’ 중심 향후비전 제시



정관 일부 변경 등 3개 안건 통과

SK텔레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2명의 이사 선임 등 총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연간 매출 17조9406억원, 영업이익 1조8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4.0% 증가했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3540원으로 확정됐다.

유영상 CEO는 주총 자리에서 2024년 실적과 함께 SK텔레콤의 AI 사업 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AI 사업 성과 창출 전략인 ‘AI 피라미드 2.0’을 중심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AI 피라미드 2.0’은 기존 전략에서 선



SK텔레콤은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 41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유영상 CEO.

/SKT

택과 집중을 강화한 구상으로, AIDC 분야에서는 구동형 AI 클라우드(GPUaaS),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전용 AI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등 4개 모델로 세분화해 시장을 공략한다.

B2B 영역에서는 기존 엔터프라이즈 AI 및 AI 클라우드에 더해,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를 통해 수익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B2C 영역에서는 가입자 890만 명을 보유한 AI 에이전트 ‘에이닷’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완결형 AI 서비스 ‘에스터(A\*, Aster)’를 연내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게임성·기술력 등 기본에 충실할 것”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R&D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전략을 주주들에게 보고하면서 게임성, 기술력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이뤄낸 핵심 성과 중 ‘워킹 엔씨소프트’를 강조하며 올해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엔씨소프트는 매출 1조5781억원, 영업손실 1092억원을 기록한 데 대해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이 주된 요인이었고, 일부 신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미국 법인의 신규 리더십을 확보, 베트남 신규합작법인 설립, 아마존과 협업해 ‘쓰론 앤 리버티’를 지난해 10월 글로벌 출시, 450만명 유저를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기존 IP를 재정비하고 출시 예정인 신작과 퍼블리싱 타이틀의 기술·게임성 평가 기준을 높여 전사적으로 개발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AI 중심, 기대에 걸맞은 미래 열어갈 것”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 가운데 보유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망한 재무구조 유지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걸맞은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서울시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제72기 SK네트웍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AI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을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다.

올해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들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력 확보 ▲AI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및 AI 성장 방향성과 비전 정립 ▲AI 컴퍼니 비전에 걸맞은 역량과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초 역량이 탄탄한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SK네트웍스는 사내이사로 최성한 사업총괄 사장을 재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로 김기동 SK(주) 재무부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